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유가 상승하며 코스피 하락 전환

후티 반군의 사우디 공격 지속에 유가 상승폭 확대
캐나다, 미국에 최고 50% 보복 관세 부과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6,954.52pt (-0.58%)	811.88pt (-1.25%)	1,100.08pt (-0.46%)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344.60 원 (-2.1 원)	4.3620% (-2.3bp)	7,703.75pt (-0.24%)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30,332 억	+1,490 억	+7,066 억
외국인	+6,482 억	+607 억	+6,521 억
기관	+6,427 억	-2,178 억	-14,635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피는 한때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2%대 강세를 나타냈으나,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해당 시각 외신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면서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밤사이 전해졌던 사우디 아람코 정유시설 타격 소식과 더불어 지정학 우려가 높아지며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시각 오후 1시부터 캐나다가 미국에 부과한 최고 50%의 보복관세가 발효됐습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다소 완화되는 듯 보였던 글로벌 무역 갈등이 재확산될 우려에 투자심리는 더욱 위축됐습니다. 이날 KOSPI는 0.58%, KOSDAQ은 1.25% 내렸습니다. KOSPI 거래대금은 약 26.0조원, KOSDAQ은 약 8.0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 외국인은 KOSPI를 6천억원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했고, 삼성전기를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KOSPI를 6천억원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와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했고, 삼성전기를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대미 투자 기대감이 지속되며 원전주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저가 매수세 유입에 백화점 및 유통주가 상승했습니다. 그 외 게임, 엔터주가 반등했습니다. 반면, 장 초반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주가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 둔화 우려에 자동차주가 하락했습니다. 그 외 IT H/W, 2차전지, 바이오 업종이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롯데쇼핑(+4.90%), 현대건설(+3.55%), 두산에너빌리티(+1.82%)가 올랐고, 삼성전기(-5.78%), 알테오젠(-3.15%), 현대차(-2.04%)가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